INCHEON CULTURE & ARTS CENTER

20th Anniversary

여름호

아트인천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Vol.26 2014 Summer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정보지

http://art.incheon.go.kr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름답던 그 사람 볼 수 없다는 저만치 떠나갔다는

바람만 슬피 울고 아무 대답도 없어 밝은해가 뜨는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미쳐버린 세상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지만 난 당신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버텨갈께요
멀리서겠지만 가끔 그렇게 우릴 지켜봐줘요
밝은해가 뜨는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린 당신을 믿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Vol.26 2014·Summer

아트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정보지

Cover Story

올프 보위트의 환상동화!

빙하탈출대소동

2014년 7월 26일(토)~27(일) 오전 11시, 오후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등록일 2008년 3월

발행인 박동춘

편집인 신재명

편집장 조우선

T.(032)420-2735 E-mail.woos4242@korea.kr]

편집·교열 유은미

취재·기획 정수산나, 오수지

디자인 기획 전재삼

디자인·인쇄 네오다큐

취 재 김지숙, 유재원

사 진 유창호

디자인 강승희

발행일 2014년 5월 14일

발행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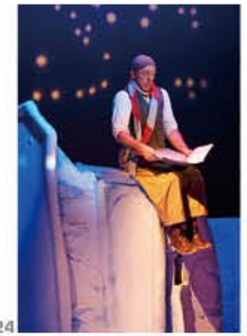
405-8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49

http://art.incheon.go.kr/

15

44

18



24

38

28

10

06

36

32

26

Contents

Column & Interview

06 People1 연극인 정진

10 **공주형의 미술이야기** 인류 최초의 회화, 동굴 벽화

15 People2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기획자)

Preview

18 Classic 스테이지 온 스크린

22 Theatre 셈머 페스티벌

24 Classic 빙하탈출대소동

26 Orchestra 식구를 찾아서

28 Dance 한여름 밤의 꿈

Review

30 Classic-Review

32 Theatre 매직더스트

36 Photo-Review 개관 20주년 기념전

Information

38 Space

44 IMAG (Incheon Metropolitan Arts Group) 교양악단 퍼구션 외

48 News 한전인천본부 협약체결 외

50 **광고** 한여름 밤의 꿈

51 Performance 6~8월 공연 소개

54 Exhibition 6~8월 전시 소개

56 Culture Leader **가입안내** 회원가입안내 & 제휴점

관객과 울고, 웃고…
무대에서 펼친 노장배우의 삶
탤런트 정진

글 김인숙 사진 유창호

**어린 시절, 막연히 배우를 꿈꾸던 소년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연기학원을 기웃거리기도 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인천에서 충무로를 오가며 배우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딱히, 어떤 배우라고 이유를 들진 못했지만
그의 발길은 언제나 배우가 될 수 있는 문턱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진짜 배우가 되었다.
긴 시간, 대중과 함께 해온 친근한 배우다.**

5년의 휴식 끝, 두근거리는 무대로

배우 정진. 그를 만난 건 뮤지컬 '소금' 공연을 앞둔 열흘 전 이었다. 2009년 사극 드라마 '천추태후'의 고현 내관 역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휴식기를 가진 그였다. 그런 그가 5월 9일 공연된 박범신 작가의 '소금'을 각색한 뮤지컬에서 연기를 선보인 것이다. 70이 넘은 노장배우는 여전히 무대가 설레는 듯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매우 호감이 간다고 했다.

"아버지의 희생과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작품이에요. 우리 애들은 모두 시집 장가를 갔지만 제 입장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의무를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1962년 연극무대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데뷔 이후에는 돈과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상업적인 작품 대신 정통연극만을 고집하며 배우로서의 삶을 펼쳐나간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연극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학교 연극지도 등 소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러다 1979년 그는 TBC 공채 탤런트가 되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배우로서의 삶을 왕성하게 벌여 나간다.

연극배우에서 탤런트로

탤런트가 된 이후 그는 배우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1984년 MBC에서 방영된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 그는 한명회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시청률도 좋았다. 빼어난 연기로 제2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연기상도 수상했다. 이어 '거부실록 무역왕 최봉준'에서 보여준 친근한 이미지 덕에 대중에게 인기를 끌며 CF에서도 활약했다. 이후엔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으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

그는 화려하고 멋진 배역을 원하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배역을 충실히 해내는 배우다. 그러다보니 여러 드라마에서 맡은 배역마다 성공을 거두었고 연출가들의 통념을 깨뜨리는 계기도 제공했다.

"사실 멋있는 배우들이 많지만 나처럼 왜소하고 못생겨도 드라마에서 주연 급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연출가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를 오히려 더 반기지만 그가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만 해도 연극에서 드라마로 옮기는 일은 배신자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가 드라마에서 연이어 성공을 거두자 대학로에서는 '연극을 열심히 하면 드라마에서도 성공 한다'는 이야기가 배우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퍼져 나갔다. 일종의 자극제가 되어 배우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당시 엔터테이너의 첫 모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유년의 기억, 그리고 배우

정진은 유년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다. 축현 초등학교 재학시절 그는 늘 응원단장 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친구와 함께 '미추홀 예술학원'을 찾아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털어놓지만 당시 학원은 연기를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고교시절 역시 그는 영화 마니아였다. "수업을 빼먹고 영화관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주말에는 여지없이 조조영화를 보고 악극단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러갔죠. 그렇게 극장이 끌렸어요."

그러다 그가 본격적으로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다. 충무로에 위치한 배우학원에서 에서 막연하기만 했던 배우의 꿈에 날개를 달게 된다.

"극작가 차범석 선생과 연출가 겸 연극이론가였던 이광래 선생 등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연기학원이지만 단순히 연기만 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가미된 수업을 진행해주셨죠. 차원이 다른 수업이랄까요. 당시 고2였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식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동국대에는 연극영화학과가 신설됐고 그는 1기생으로 입학했다. 이후 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문화 활동의 열풍이 불어대던 때, 그는 명동과 광화문 일대에 자리한 소극장에서 연극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천에서의 무대를 꿈꾸던 나날들

서울에서의 활동당시 그는 인천에서 다방을 빌려 단막극을 선보였다. 하지만 연극으로 손님 좀 끌겠다고 생각했던 주인들은 공간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해지며 손님들의 발길이 줄자 이내 공간 제공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만든 것이 바로 1984년 80석 규모로 문을 연 '경동예술극장'이다.

"드라마 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의욕과 연극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올랐나 봐요. 해보자 해서 문을 열었는데 환경이 척박했어요. 손님은 꽤 있었지만 대부분 초대권 손님이었죠. 4~5년 운영하다보니 어느 날 '깨진 독에 물 붓기'란 생각이 들더군요. 운영비는 물론 가정도 있으니까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문을 닫았죠. 여지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이끌어보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자립이 힘들더라고요."

자생할 수 있는 터가 척박했던 탓일까. 지역에서 순수예술을 펼쳐보이고 싶었던 그의 꿈은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한 채 접어야 했다. 그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무대는 인생이다

그에게 무대는 때때로 아쉽고 각정스러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대를 삶이라고 표현했다.

"삶을 위해 돗자리를 펴놓은 곳이죠. 무대는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배우인 내가 애정을 가져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나자 그가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소극장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끝에서 그의 모습이 필름처럼 아스라이 스쳐 지난다. 배우를 꿈꾸던 소년의 얼굴이, 그리고 돈과 명예보다는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컸던 노배우의 푹심 어린 얼굴이. 아트인천

이집트 미술, 완전한 것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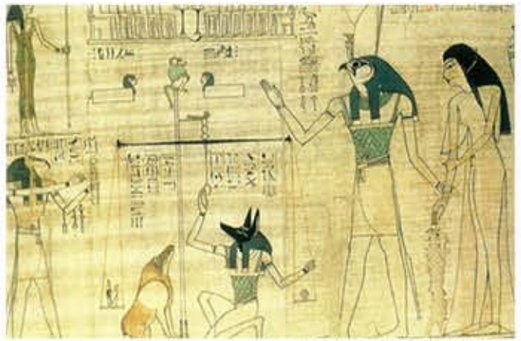
수학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다.

이집트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조한 왕국이 1년에 한 차례씩 곤혹을 치렀습니다. 7월에서 11월 사이의 물난리 때문이었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6,6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일 강에서 비롯된 홍수였습니다. 이집트 남쪽에 자리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우기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가 나일 강을 따라 흘러 내려와 이집트를 물바다로 만들었던 것이었지요.

이집트는 거의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한 사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세원은 농산물이었지요. 관리는 세금을 매겼고,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뇌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백성들은 체벌을 받았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세금으로 살림을 운영하던 이집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물난리로 이웃과의 땅의 경계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소유한 토지의 면적 또한 얼마인지 정확치 않으니 세금을 측정할 기준이 애매해 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의 범람 후 관리들은 토지 조사로 분주했습니다. 토지를 구획해서 다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지요.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불만을 사서는 안 되었습니다. 측량술과 함께 이집트에 수학이 발달한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인들 모두 전문적인 수학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 문제는〈서기관〉과 같은 이집트의 지식인들의 몫이었지요.〈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든네 개의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중에는 백성들의 땅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기하학, 토지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곱셈, 공평하게 토지를 배분하는 분수 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일 강이 넘쳐 엉망이 된 세상에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이집트인들은 수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구석기 시대의 석회암 동굴)

재앙, 축복이 되다.

물난리로 국토가 물에 잠겼다니 나일 강의 범람은 이집트의 재앙이었겠군요. 하지만 이집트는 '나일 강' 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홍수를 일으키는 나일 강이 재난이 아닌 축복이라니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수로 건조한 이집트의 땅은 비옥해 졌습니다. 불모의 땅이 물난리로 생명의 산실로 탈바꿈된 것이었지요. 나일 강의 범람 이후 농사 짓기에 적합해진 땅에 이집트인들은 씨앗을 뿌리고, 쟁기로 일궈,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센네페르의 무덤 벽화 〈제 18왕조, 테베 시작〉

이집트인들이 간절히 나일 강이 넘쳐 사막까지 유입되기를 소망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메마른 이집트에서 물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나일 강의 범람으로 이집트인들은 풍부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순조로운 삶 속에서 이집트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건기와 우기, 일출과 일몰이 반복되듯 인간의 삶은 죽음과 부활로 순환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일 강의 신 '하피'를 공경했던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도 현세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의 복된 삶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염원은〈센네페르의 무덤 벽화〉에서도 확인됩니다. 센네페르는 테베의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무덤 천정에 풍성하게 그려진 포도넝쿨이 말해주듯 그의 주요 임무는 포도밭의 관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포도주는 신성한 음료로 고위 관료가 맡아 돌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무덤 벽화 곳곳에는 아내와 함께 했던 즐거운 순간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도 누리고 싶었던 생전의 행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삶이었던 모양입니다.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 〈기원전 1323년경, 무게 11kg〉

크기가 신분을 정한다.

센네페르 부부와 마찬가지로 화목한 순간의〈프타마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모두 몇 명일까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앉아 있는 세 명입니다. 남성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좌우로 두 명의 여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앙에 자리한 남성의 다리 양 옆으로 작은 크기의 인물이 두 명이 서 있습니다.

〈프타마이 가족〉의 구성원은 이처럼 모두 다섯 명입니다. 가운데가 아빠 프타마이이고, 그 왼쪽이 엄마 하셉수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맏딸입니다. 세 명의 인물에 비해 나머지 두 명은 크기가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프타마이와 하셉수트는 2남 1녀를 두었지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와 같은 크기이고, 어떤 자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집트 미술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표현이 규범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피부색은 남자가 여자보다 어둡게 채색되었습니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도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몸 전체를 덮는 옷차림인 반면, 남성들은 상반신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발의 길이도 여자들은 가슴까지 내려왔던 반면 남자들의 그것은 어깨 정도 길이였습니다.

또한 앉아 있는 조각상의 경우 두 손의 위치는 대부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둥근 향수 단지를 재물로 들고 앉아 있는〈투트모세 3세의 무릎 꿇은 상〉처럼 보듯 말이지요.

여기에 하나 더, 인물의 신분에 따라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인물은 크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게 표현되었던 것이지요.〈프타마이 가족〉에서 맏딸이 아빠와 엄마 대등한 크기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맏딸이 신전 고위 관리직이었거든요. 이처럼 이집트 미술은 인물의 크고, 작음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심장의 무게가 깃털과 같아야 한다.

영혼불멸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관심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사후 세계의 안내서를 만들 정도였지요.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의 관 안에 특별한 두루마리를 넣었습니다. 다음 세상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한 기도문과 마법의 주문 그리고 맹세 등이 담긴 〈사자의 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프타마이 가족 〈제 19왕조, 석회암, 높이 99cm, 이집트 박물관 베를린〉

아문-헤르-케페셰프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

이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 태양의 신 '라'의 배를 타고 공포의 계곡을 건넙니다. 이후 죽은 자들은 시체 방부 처리의 신 '아비누스'의 안내를 받습니다. 죽은 자를 인간의 몸통에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아비누스가 심판 대 앞으로 인도합니다. 심판대 앞에 선 죽은 자는 마흔 두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 고백의 주요 내용은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마아트의 부정 고백들'이라 부르는 과정을 이후 중요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양팔 저울로 심장의 무게는 가늠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심장을 중요한 장기였습니다. 시신을 미라로 만들 때 위, 내장, 간, 허파 등은 카노푸스라 불리는 단지 안에 따로 보관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사후 세계의 심판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죽은 자의 심장은 타조 깃털과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저울이 한 쪽으로 기울면 죽은 자는 바로 괴물 '암무트'에 잡아먹힐 것입니다. 하지만 양팔 저울이 평행을 이루었다면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사자의 심판〉부분도에는 사후 세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흰 옷을 입은 죽은 자가 호루스의 안내를 받아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는 그토록 원하던 부활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름답다.

이집트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왕족은 두건, 머리띠, 왕관을 착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발을 썼지요. 가발도 신분이 높으면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사용했고, 낮으면 식물의 섬유로 만든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미술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신전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자세는 동일합니다.

인물의 발과 얼굴은 옆을 바라보고, 눈과 가슴은 정면을 향합니다. 어색하기 그지없는 자세지요. 그런데 이집트 미술은 이런 인물의 자세를 고집했습니다. 그것도 3,000년동안이나 말이지요.

이 자세는 이집트인들의 내세관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은 죽음 후에도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테베는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백 개의 문이 있는 호화찬란한 고도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전하듯 고대 이집트는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왕묘에는 유독 황금으로 만든 부장품이 많습니다. 1922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왕의 묘에도 사후 왕이 사용할 3,500점에 달하는 부장품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묘의 주인은 9살에 왕위에 올라 18살에 요절한 비운의 파라오 투탕카멘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부장품 중에는 114 킬로그램에 달하는 순금으로 만든 관과 시신의 얼굴을 덮은 11 킬로그램 무게의(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상상했던 영혼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황금처럼 변함없는 것이었지요.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출발로 간주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 후 사후 세계에서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영혼은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완전한 육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 자고로 얼굴과 다리는 옆에서 볼 때 얼굴과 다리답고, 눈과 가슴은 앞을 향할 때 눈과 가슴답다고 생각했지요. 이런 까닭에 이집트 미술에서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완전함을 아름다움으로 추구했습니다.

글 **공주형**

미술평론가,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박수근 회화론으로 박사 학위 취득,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저서로는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줘〉, 〈색깔 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 〈천재들의 미술노트〉,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미술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은 101가지〉, 2010 ~ 현재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공연 예술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만나는 순간 의미를 획득한다. 공연과 관객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친절한 웃음으로 관객을 안내하고, 편의 제공과 안전 관리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청년들이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의 '얼굴' 이나, '꽃' 같은 화려한 수식어 대신, '관객들을 위해 존재한다' 는 단단한 자부심을 택한 공연안내원(하우스매니저, 하우스어셔)들의 하루를 지면에 옮겨보았다.

무대를 위한, 무대 밖의 얼굴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꽃, 공연 안내원들을 만나다

유니폼 위에 덧입은 공연안내원으로서의 책임감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이면 공연안내원들의 일과가 시작된다. 유니폼을 챙겨 입긴 했지만, 웅기종기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게 영락없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웃매무새를 가다듬고, 동료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10분이 지나자 격을 갖춘 편안한 미소와 단정한 태도로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경력 4년차로 하우스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우석(26) 씨는 예술회관의 공연안내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술회관에는 전문 공연안내원은 없고,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수를 정해서 공연 안내 노하우가 공유되도록 하고 있고, 역할도 잘 따져서 분담하기 때문에 다들 큰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다보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말에서 신뢰가 묻어났다. 공연 1시간 20분 전이 되자 김 씨는 공연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전에, 당일 공연 내용과 공연 오픈 시간, 공연 안내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는 하우스미팅에 참여해야 한다.

하우스미팅이 끝나자, 하우스매니저는 나머지 공연안내원들인 하우스어셔들에게 미팅 내용을 전달했고, 하우스어셔들은 각자가 맡은 당일의 업무와 위치들을 확인·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공연 안내를 위한 숙지사항은 물론, 서로의 표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가진 두터운 책임감이 엿보였다.

관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제공하는 네 가지 업무

공연 시작 1시간 전, 공연안내원들은 일사분란하게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하우스매니저가 수행하는 총 매니징 업무를 제외한 공연안내원들의 업무는 안내 데스크, 수표, 좌석안내의 3가지 역할로 나뉘어 있었다.

일찍 도착한 관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안내 데스크다. "오늘 공연 4시에 있는 거 맞죠?", "유모차 좀 맡길 수 있을까요?" 이병건(26) 씨가 안내 데스크에 자리를 잡자마자, 다양한 문의들이 쏟아졌다.

"안내 데스크는 많은 문의를 소화해야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공연장 곳곳에 대기하고 있어도 손님들은 데스크에 문의를 많이 하세요. 데스크에서 일 하는 사람은 회관의 구조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또 무대 감독님과 하우스 매니저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의 분위기를 밝고 편안하게 조성하는 것도 공연안내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수표 업무를 맡은 김가영(21) 씨는 수표가 단순히 티켓을 끊어드리는 업무에 그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표업무는 말 그대로 관객들께 티켓을 끊어드리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관객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그 과정은 티켓팅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의외로 머뭇거리는 손님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먼저 다가가 도와드리고, 항상 밝게 안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공연 안내원들은 관객이 티켓을 끊고, 자리에 앉는 모든 순간에 섬세하게 관여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관객을 안내하는 객석안내 업무야 말로 그 섬세함이 가장 발휘되어야 할 역할이었다. 궁민재(24) 씨는 객석안내의 핵심이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객석안내 업무는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처음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자리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어르신들의 경우 공연장 안이 어두워서 자리 찾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 자리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세심함을 발휘해서 손님들의 불편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히 문의를 해결하고, 표를 받고, 자리를 안내하는 일들일 수도 있지만, 예술회관의 공연안내원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석하고,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공연 전 관객과 무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공연안내원들의 움직임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공연의 감동을 더욱 짙게 만드는 공연안내원들의 미소

공연이 시작되어도 추가 입장하는 관객들을 안내하고, 공연장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의들을 해결하느라 분주한 공연안내원들. 이들의 업무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관객 퇴장 안내와 마무리 인사를 하고, 공연장을 정리하며 분실물까지 접수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공연의 여운과 같이, 한참동안 사라질 줄을 몰랐다.

"하우스어셔를 관객들께서 직원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 걸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아니까 저희가 먼저 다가가려 하지만, 바쁠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를 편안히 생각해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유선(21) 씨의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연안내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공연장은 밝고, 따뜻하고, 편안했다. 공연장을 환하게 밝히는 동시에, 공연의 감동을 더욱 짙게 만드는 공연안내원들의 미소. 앞으로 무대와 관객을 위해 움직이는 무대 밖의 얼굴들을 만나면,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를 건네 보는 것이 어떨까? 예술의전당

名作,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Stage on Screen

공연일시 : 2014년 8월 20일(수)~8월 30일(토)
수·목 19:30 / 금·토 20:00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관 람 료 : 무료

상영장르 :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예매문의 : ☎032-420-2731(공연기획실)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하순 저녁나절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으로 나들이 오는 것은 어떨까? 달빛이 머무르는 너른 광장에 친구끼리, 연인끼리 또는 가족끼리 간단한 음료를 준비해 와서 대형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로 최고의 영상물을 즐기며 일상의 여유로움을 만끽해보자.

전년보다 더 화려한 작품으로 다시 찾아온다.

2013년 처음 기획되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선보인 〈스테이지 온 스크린〉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기대에 힘입어 2014년에는 더욱 더 화려한 작품으로 야외광장을 다시 찾아온다. 오페라와 뮤지컬로 국한되었던 전년도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올해에는 발레작품까지 프로그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8월 하순부터 총 2주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8개의 공연실황이 530인치의 대형 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명품발레
〈백조의 호수〉, 〈지젤〉, 〈고집쟁이 딸〉

첫 번째 작품은 영국 최고의 안무가 매튜 본의 파격적인 해석과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발레 〈백조의 호수〉이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이 작품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30여개의 상을 휩쓸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수작이다. 가녀린 여성 무용수 대신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낸 남성무용수가 '백조'역을 맡으면서 강한 힘과 관능미,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세계 3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영국로열발레단의 〈지젤〉과 〈고집쟁이 딸〉도 주목할 만하다. 2006년 〈지젤〉 공연은 로열발레단의 간판스타 알리나 코조카루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낳았다. 어느 작품보다 다양한 기교가 요구되는 지젤의 연기 동작 하나하나에 발레에 대한 코조카루의 열정과 통찰력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녀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인 덴마크 출신의 발레리노 요한 코보그가 알브레히트를 맡아 이루지 못할 사랑의 아픔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한다. 나머지 한 작품인 로열발레단의 〈고집쟁이 딸〉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함께 즐기기에 적당한 공연이다. 엄마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농부를 선택하는 여주인공 리즈로 인해 결국 고집을 꺾고 가난한 사위를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드라마 속에 다양한 형태의 춤이 적절히 녹아들어 관객들의 흥미를 더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랑스런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네즈가 리즈 역을, 그녀의 애인 콜라스 역에 쿠바 출신의 역대 최고 스타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그녀와의 환상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고전적 연출부터 현대적 연출의 오페라 〈리골레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첫 번째 작품은 베르디의 오페라 걸작 〈리골레토〉.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2013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공연이다. 16세기 만투아에서 1960년대 호화찬란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로 극적 배경을 치환함으로 자칫 식상해질 수 있는 레퍼토리에 신선함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뮤지컬보다 화려한 무대장치, 베르디 라인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는 이탈리아 지휘자 미켈레 마리오티 그리고 3인의 주역배우 표트르 베찰라, 디아나 담라우, 젤코 루치치의 음악성이 관객들을 감동의 무대로 인도한다.

두 번째 작품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고난도의 '광란의 아리아'로 유명한 이 작품 또한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제작한 공연이다. 피 묻은 잠옷 차림으로 20여분 동안 펼치는 '광란의 아리아'를 부르는 루치아는 안나 네트렙코가 맡아 피투성이 신부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극적인 생동감 그리고 잘 제어된 가창력으로 화려한 콜로라투라 기교를 내세워 벨칸토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녀와 함께 호흡을 맞춘 베찰라와 크비에첸 또한 최고의 가창과 열연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마지막 작품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소박한 시골청년 네모리노와 매력적인 아가씨 아디나의 재미있는 사랑이야기를 코믹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다. 2005년 빈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오토 셴크의 고전적 연출방식 아래 펼쳐진 이 공연은 플란도 비야손과 안나 네트렙코 등 완벽한 캐스팅과 열연으로 화제를 모았고, 레오 누치의 벨코레 상사, 일데브란도 마르칸젤로의 돌카마라 등 베테랑 조역진의 탄탄한 뒷받침으로 그 빛을 더했다.

주말저녁을 장식하는 화려하고 특색있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프랑스 국민 뮤지컬로 일컫는 〈노트르담 드 파리〉가 주말저녁 관객들을 프랑스 특유의 예술성과 감성으로 물들인다. 프랑스 최고의 예술가들이 뭉쳐 탄생시킨 이 작품은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집시여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곱추 꾀지모도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려한 특수효과와 54곡의 아리아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작품을 초연 당시 오리지널 캐스트들의 무대로 만날 수 있다.

마지막 공연은 초연 41년 만에 현대적으로 새롭게 각색되어 영국 아레나 무대에 올려진 팀 라이스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무엇보다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받은 이 작품은 훌륭한 노래와 연기, 환상적이고 놀라운 무대 장치와 조명 그리고 완벽하게 관객들을 사로잡는 명곡들이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PROGRAM

(수·목 저녁 7시 30분 / 금·토 저녁 8시 / 일 7시 30분)

일정 / 상영 프로그램
8.20(수)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 2011 런던 샤들러스 웰스 극장 공연실황
8.21(목)
마리우스 프티파의 발레 〈지젤〉 : 2006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공연실황
8.22(금)
프레데릭 애쉬튼의 발레 〈고집쟁이 딸〉: 2005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공연실황
8.23(토)
빅토르 위고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1999 프랑스 파리 공연실황
8.24(일)
우천으로 인한 취소 프로그램 순연

일정 / 상영 프로그램
8.27(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 2013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실황
8.28(목)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2009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실황
8.29(금)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 2005 빈 국립 오페라 극장 공연실황
8.30(토)
라이스&웨버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 2012 영국 아레나 투어 공연실황
8.31(일)
우천으로 인한 취소 프로그램 순연

※ 우천으로 취소되는 공연은 매주 1편에 한해 그 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청소년 음악회
2014 썸머페스티벌
SUMMER Festival 2014

여름방학 스테디셀러 청소년 음악회
2014 Summer Festival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음악축제 〈2014 썸머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펼쳐집니다. '클래식은 지루하다! 어렵다!' 는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한 〈썸머페스티벌〉은 잘 짜인 프로그램과 친절한 해설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4회를 맞는 2014년에도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로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바로크와 고전, 낭만, 민족주의와 같은 시대별 음악들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오페라 갈라, 피아노 독주 등 색다른 음악회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국내외 실력 있는 음악가들의 대거 참여로 클래식입문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청소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3년간 1만9천여명이 관람한 스테디셀러 청소년 음악회!

2011년 약8천명, 2012년 약5천명, 2013년 약6천명으로 3년간 1만9천명이 관람한 인천을 대표하는 청소년음악회 프로그램 썸머페스티벌!

특히 2013년에는 6회 공연이 매진되는 등 여름방학에 인천지역청소년들의 많은 선택을 받은 위트 있고 유익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입니다.

국내외의 실력 있는 음악가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

탁월한 연주력으로 많은 매니아들을 이끄는 마에스트라 여자경과 프라임필하모닉, 비엔나 폭스오퍼오케스트라의 수석연주자들로 구성된 비엔나 리흐텐탈콰르텟, KBS FM〈장일범의 가정음악〉에서 고정코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피아니스트 조재혁 등 국내외 실력 있는 음악가들의 대거 참여로 더욱 탄탄한 출연진을 자랑합니다. 음악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대별 서양음악사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해설로 감상하는 대공연장 음악회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몇백 년 전 작곡가의 걸작을 만나 교감하는 것은 짜릿한 경험입니다. 올해는 바로크와 고전, 낭만, 민족주의와 근현대 등 각 시대별 음악을 명쾌한 해설과 함께 2관 편성 이상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흥미로우면서 교육적인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연주자와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해설이 있는 소공연장 음악회

음악회는 크게 관현악, 성악, 독주회, 실내악, 오페라 등의 형태로 구분 됩니다. 대공연장에서 웅장한 관현악 연주를 선보인다면, 소공연장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의 음악회를 연주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따른 해설은 물론, 연주자와 함께 일치된 호흡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빙하탈출대소동

서커스와 마임, 영상이 만드는 매혹적인 무대
호주에서 온 피지컬 씨어터

공연일시 : 2014. 7. 26(토)~27일(일) 오전 11시, 오후3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 람 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사랑티켓 www.sati.or.kr

신체극의 대가라고 불리는 호주의 울프 보워트(Wolfe Bowart)는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임이스트이다. 빙하탈출대소동(원제 : The Man The Sea Saw)는 울프 보워트가 연출하고 출연하는 1인극으로 서커스와 마술, 마임, 영상이 함께 결합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비언어극이다. 다양한 오브제의 활용과 재치 넘치고 섬세한 신체적 언어를 사용해서 매혹적이고 이상한 꿈 속 같은 세계를 무대화하였다.

"보워트는 이 모든 모험을 대사 없이, 그러나 경계없는 표현으로 연기한다. 그의 무성영화 배우같은 얼굴과 아크로바틱으로 단련된 신체, 그리고 마술과도 같은 손은 공연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전달한다." (The West Australian)

"보워트는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을 환기시켜주는 마술적 리얼리즘에 탁월하다." (The Australian)

"아름다운 이미지가 가득하고, 아련한 애틋함도 있으며,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대단히 재미있는 공연." (The Daily Telegraph, Sydney)

유빙 위에서의 소풍

얼음으로 가득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빙(流氷) 위에서 조용한 소풍을 즐기던 한 남자.
잘 세운 계획은 틀어져 버리고, 엉뚱한 소동과 풍랑으로 유빙이 갈라져 버리고 표류하게 되는데……
비현실적인 팝업북처럼 펼쳐진 동화와도 같은 무대세트에 둘러싸인 이 상냥하고 감동적인 모험은 어린 시절의 기억, 동심을 향한 애틋함, 가족과 사랑,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슬아슬한 아크로바틱과 재치 있는 익살, 그리고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감동 사이에서 함께 표류하며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 표류하던 이 남자의 기발한 탈출 방법은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울프 보워트는 서커스 기술과 광대극, 무대 기법, 크고 작은 인형들, 관객 참여, 영상과의 상호소통, 코미디 등 전체 무대의 시각적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 독특한 작품은 6세부터 96세까지 어린이와 아직 동심을 간직한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이뉴

일상을 감동으로 바꾸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공연일시 : 2014. 6. 5(목) 오후 7시 30분
6. 6(금) 오후 3시, 7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 람 료 : 전석 2만원
관람연령 : 10세 이상
예매문의 : 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사랑티켓 www.sati.or.kr

두 할머니와 동물들이 주는 웃음+감동 보따리!
소극장 뮤지컬의 매력이 보석처럼 빛나는 따뜻한 식구 이야기

박복녀 할머니는 몽·낭·꼬라 불리는 개, 고양이, 닭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 박복녀 할머니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지회자 할머니. 지회자는 박복녀의 집 주소가 적힌 편지 봉투를 보여주며 자기 아들 집이라고 우긴다. 두 할머니는 실랑이 끝에 결국 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고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박복녀의 옛 물건을 보고 추억에 잠긴 지회자에게 박복녀는 무작정 화를 내며 쫓아내는데…, 두 할머니의 울고 웃는 명랑하고 따뜻한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세상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뭉클한 선물 같은 작품

가족의 의미를 되묻고 가치를 되새기는 가슴 찡한 뮤지컬이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이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두 할머니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버려진 동물들과 가족애를 느끼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이 뮤지컬은 관객을 두 번 울게 만든다. 처음에는 웃느라 눈물이 나고, 다음에는 가슴이 찡해져서 눈물이 난다.

닫혀있던 마음을 벽을 허물고 혈연보다 더 진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식구 이야기는 세상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뭉클한 선물 같은 작품이다.

배우들의 빼어난 명품연기

스토리만으로 보면 평범한 극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포인트는 바로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다. 박복녀, 지회자 할머니로 분한 배우들은 40대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하게 할머니 배역을 소화한다.

박복녀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은 웃음 폭탄이다. 강아지 '몽', 고양이 '낭', 닭 '꼬'는 두 할머니들의 우정을 지켜보는 증인이자 동물의 인권을 옹변하는 존재들이다. 할머니와 함께 할 때는 충실하게 개와 고양이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할머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벌떡 일어나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폭소를 자아낸다.

할머니들이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면서 산을 넘어가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먹먹해진다. 이 뮤지컬은 결국 혈연으로 맺어진 식구만이 식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모두가 식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잘 만들어진 뮤지컬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뮤지컬계에서도 인정받아 2011 대구뮤지컬페스티벌에서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했으며, 2012 한국뮤지컬대상 5개 부문 노미네이트와 극본상을 수상한 수작(秀作)이다.

가장 재미있고 가장 한국적인
셰익스피어 낭만희극의 무한변신!!!
무더운 여름, 유쾌, 상쾌, 통쾌한 환상의 연극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일시 : 2014. 8. 30(토) 15시 19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 람 료 : 전석 2만원
관람연령 : 8세 이상
예 매 : 회관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사랑티켓 www.sati.or.kr

〈한여름 밤의 꿈〉은 놀랄 만큼 장난기 있고, 현명하고, 마법 같은 공연이다.
모든 것이 더없이 훌륭하다. **영국 THE SCOTSMAN**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해석
지금까지 수많은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희곡들이 새로운 해석으로 공연되어 왔지만,
이번 공연만큼 가장 원작과 신비감(Magical)을 살린 작품은 없었던 것 같다. **호주 Sunday Mail**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언제나 '언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말의 무거움을 홀홀 털어버린 에너지와 율동만으로도
셰익스피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비칸센터 루이즈 제프리스 예술감독**

요정들이 도깨비로 바뀌었다?
셰익스피어 작품, 한국 색채로 그려내다.

대중성보다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스테이지149 演劇船津' 첫 번째 시리즈인 〈한여름 밤의 꿈〉이 무대에 오른다.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극단 여행자가 서양의 고전인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튼튼한 원작을 활용해 우리나라 전통 미학과 연희 양식으로 풀어냈다. 원작의 숲 속 요정들은 한국의 도깨비로 바뀌었으며, 부드러운 이동을 위해 한국 무용을 가미했고 의상은 삼베와 오방천을 사용했다. 설화와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전설 속 도깨비를 희화화하여 친근하고 귀엽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역동적인 구성과 절도 있는 배우들의 군무와 아름다운 노래는 관객과의 흥겨운 소통과 교감을 이룬다. 이런 무대 안에 애절한 네 남녀의 사랑이야기도 녹아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버려해 관객의 마음을 흠칠 놀이와 사랑이 절묘하게 버무려져 있다. 초연한 지 12년째를 맞는 이 작품은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평론가들의 호평 속에 300회가 넘는 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에는 한국연극 최초로 셰익스피어의 고장인 영국 '바비칸센터'와 '글로브극장'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어느 고요한 밤, 마을 어귀 고목 주위로 도깨비불이 날아들며 춤과 악(樂)을 좋아하는 도깨비들의 흥겨운 군무와 노래와 함께 시작된다. 한 여름밤의 꿈 연인인 항(亢)과 벽(壁). 그러나 벽은 아버지의 강요로 정혼자 루(累)에게 억지시집을 가야하고, 결국 항과 벽은 야반도주 하기로 결심한다.

벽이는 루도령을 짝사랑하는 익(翼)에게 그들의 계획을 말하고 익이는 그 사실을 루도령에게 알린다. 네 명의 엇갈린 연심을 지켜보던 도깨비 우두머리 돗(火)은 장난질 좋아하는 도깨비 두두리를 시켜 은방울 독초향으로 사랑을 이루어주려 한다. 그러나 두두리의 실수로 네 연인의 사랑은 더욱 꼬이기만 하는데…

지각!
지각!
깨워 주지도 않고 미워~
어머~ 아침잠 많은 여고생이 어떻게 혼자 일어 날수 있겠습니까?
아마님이 깨워 주셔야죠~
어쨌든, 소녀 무척 늦어서 급히 학교를...
다녀 오겠습니다~
몇시간을 지켜 봤는데 아무도 안와
배가 홀쭉.. 뼈가 만져 져요
같이 살면 안돼요?
밥값은 제 용돈에서 빼주세요
허락 하셨어
같이 오래 오래 살자~
고장난거 아니예요?
아이어트 계속 했는데.. 아빠가 증인 인데..
싼거 사지 말라니까..
건강만 하라고?
아빠.. 공부하는 딸한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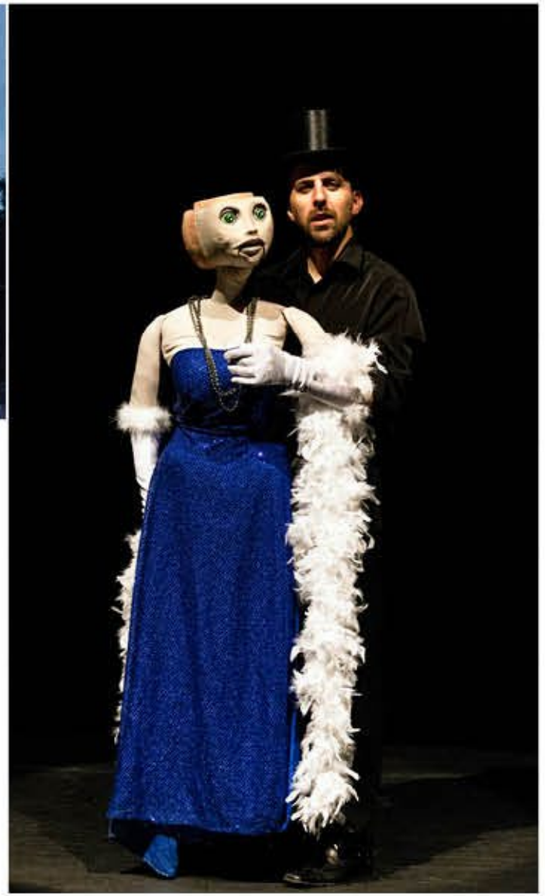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배웅까지 쑥스럽게..
우리 이쁜 딸...
엄마, 아빠 다녀 오겠습니다!
잘 다녀 와...

ⓒ정혜진, 최동인

마법과 인생, 그리고 인형과 인간의 만남...

매직 더스트

연출가,극작가,인천연극협회장 이 재 상



매직더스트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포스터였다. 푸른 눈의 인형이 스노우볼을 들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진은 3D 애니메이션을 연상시켰고, 매직더스트라는 제목과 합쳐지자 동화 같은 이야기의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다른 한 편 영상과 마임, 그리고 인형극의 만남이라는 카피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공연이라는 점에 기대를 갖게 했다. 극장에 들어서자 나와 같은 생각에서였는지 가족 전체가 함께 공연을 보러 온 모습이 여기 저기 눈에 뜨였다. 그리고 전단지를 받아들고 작품설명을 읽는 순간 작은 불안감이 들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피르와 올가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들의 만남이 서로를 다른 방향으로 돕게 된다는 짧은 설명은 이 작품이 성인동화에 가까운 철학적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어린 관객에게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피르와 올가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들의 만남이 서로를 다른 방향으로 돕게 된다는 짧은 설명은 이 작품이 성인동화에 가까운 철학적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어린 관객에게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막이 오르면 무대는 스크린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 스크린에는 불 꺼진 낡은 장원이 나타나고 그 앞, 거리에 쓸쓸한 모습의 마법사가 나타난다. 마법사는 스노우볼을 꺼내 마법의 가루를 뿌려 생명을 불어넣고 불 꺼진 장원에 불을 키며 장원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자 그 장원 속은 또 다른 하나의 도시이며 세계이다.

그 세계에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제피르와 화려한 무대의 삶을 살아가는 올가가 있다. 그들의 삶은 많이 다르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마법의 스노우 볼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결국 그 마법의 힘으로 둘의 삶은 바뀌게 된다. 제피르는 어느 순간 유명 마법사로 변신하고 올가는 소박한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둘의 이야기를 보여준 마법사는 다시 장원의 문을 닫고 불을 끈 후 어디론가 떠나간다. 그들은 스노우볼을 통해 서로를 바라볼 뿐 서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법사는 우리 인간 자신임과 동시에 관객을 인간 내면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결국 올가와 제피르는 마법사의 내면에 살고 있는 욕망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마법사와 올가, 제피르는 모두 한 인물이며 마법사 또한 무대 위의 가상인물임과 동시에 배우 자신이다.

인간은 모두 인생에 대한 욕망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설혹 그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쪽 삶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은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으며 늘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스토리가 없다. 그저 각자의 삶과 심정을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와 이미지만이 존재한다.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마임과 인형극, 그리고 영상과 함께 연기한다.

무대의 완성도는 꽤 높은 편이었다. 아시아 초연이라는 점에서 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공연정보의 부족은 관객의 선택에

혼란을 주었다. 걱정했던 대로 공연이 진행되자 어린 관객들은 흥미를 잃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다행히 청소년 이상의 몰입도는 높은 편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입장료를 지불한 가족 관객들에게는 불만이었다.

프랑스 작품들이 가지는 철학적 질문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요즘 국내외의 국제 공연 축제를 가면 대부분 작품 홍보의 한 편에 공연 관람 나이가 표기되어 있다. 선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인천서 보기 쉽지 않은 공연이고, 지극히 프랑스 공연 특유의 철학적이면서도 몽환적인 특색이 잘 살아난 공연임에도 사전 정보의 부족으로 관객의 선택에 혼란을 준 점이 가장 아쉬웠다.

많은 기획자의 희망과 달리 전 연령층을 만족시키는 공연은 매우 드물다. 그 작품이 무대공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요즘 어린이극 관계자들은 유아와 저학년 대상 즉 3-4세, 5-7세, 8세 이상의 관객은 서로 같은 작품을 동시에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갖고 있다. 그만큼 인식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기획공연들에는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 작품과 적절한 관객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품과 적절한 관객의 만남이야말로 공연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매직더스트를 보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마을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이야기,
우리 동네 문화 · 예술 사랑방

2014년 「아트인천」은 구도심 지역에서 문화를
가꾸는 공간들을 통해 인천의 문화적 변화를 발견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마을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며,
다양한 문화 · 예술 활동들을 꾸리는 지역 문화 · 예술 사랑방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에서 예술, 생활, 놀이를 키워드로 한 문화 · 예술 활동을 벌이는 한편,
마을 주민, 지역 활동가 및 예술가, 여행객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해 온 공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을 곳곳을 살뜰히 채운 예술 그리고 삶
〈우각로 문화마을〉

A.D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382
Tel : 010-5822-5579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것'을 갈구하도록 만든다. 〈우각로 문화마을〉은 아름다운 것을 갈구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삶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따뜻한 마을이다.

〈우각로 문화마을〉은 조그만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 개발 정체 지역이던 우각로 마을은 100채가 넘는 빈 집들로 인해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소수의 노인들만 남아 있었기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 문제도 심각했다. 마을의 활기와 안전을 위해서는 빈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 마을의 빈 집들을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실로 활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마을의 빈 집들이 예술가들의 감수성으로 채워지자, 마을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우각로 문화마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은 공간을 채워나갈 '거리'들을 고민했다. 마을 주민과 입주 예술가들이 머리를 모아 고민하자, 마을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비어있던 가정집은 마을 회의실이 되기도 하고, 마을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기도 했다. 통째로 비어있던 빌라는 연극, 미술, 안무, 문예창작 분야의 예술가 15인이 입주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변신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을 방문하여 작업하기를 원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도 오픈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우각로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마을에 젊은 예술가들이 입주해 개성 있는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 대신, 나무와 땅이 있는 공간 그대로를 지켜내고 싶어요. 예술과 삶이 공존하는 정서 있는 마을이 되는 것이 〈우각로 문화마을〉의 꿈입니다."

〈우각로 문화마을〉 내 사회적기업인 〈행복 창작소〉 진정하 대표의 말이다. 빈 공간을 가득 채운 문화, 예술, 그리고 사람. 잃어버린 공간의 의미를 되찾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각로 마을 곳곳에 활짝 피어 있다.

새로울 것 없더라도, 감동적인 깊이를 품은 곳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A.D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1-9
Tel : 010-9007-3427

판매를 위한 공간은 성격이 짙고 분명할수록 좋다. 하지만 삶과 생활을 고민하는 공간이라면, 다루는 범위가 넓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해야 한다. 그렇게 다양하고, 잡스러운 것이 곧 생활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배다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생활문화공간 달이네〉(이하 〈달이네〉)는 〈배다리 마을안내소〉, 〈꽃그늘아래 뜨개공방〉, 〈나비날다 책 쉼터〉, 〈게스트하우스〉, 〈생활사전시관〉을 겸하는 공간이다. 20여 년간 지역 환경 운동을 해 온 〈달이네〉의 청산별곡(활동명 이하 청산) 대표는 일생 생활이 갖는 힘을 믿으며, 배다리 마을의 일상을 지켜내고자 했다.

"제가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재개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공간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시위도 좋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고, 꾸미기 시작했죠."

배다리에서의 삶을 위해 처음 마련한 공간은 책 쉼터였다. 헌 책방 거리에, 고른 책을 보며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청산 대표의 바람 따라, 책 쉼터에 머물다 간 손님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취미, 특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엮으니, 재밌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느질 모임, 글쓰기 강좌, 영화 감상 모임 등 소규모 생활 강좌와 모임들이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취미나 특기를 잘 모으면 작은 마을 축제를 열 수 있었다. 모두 마을에 살며, 사람들의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청산 대표는 여전히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소작들을 바느질 하듯, 연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생활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연결하며 꾸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생활로서의 문화가 〈달이네〉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배다리 마을안내소〉와 〈나비날다 책방〉의 여유, 〈생활사전시관〉의 물건과 역사, 〈게스트하우스〉의 쉼에는 새로울 것 없는 우리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린 깊은 감동들이 진하게 묻어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확장되는 유쾌한 놀이들
〈끼룩끼룩 갈매기 여관〉

A.D : 인천시 중구 내동 176번지
H.P : http://kirukkiruk.com

내가 사는 동네를 재미있게 느끼기란 힘들다. 매일 보고, 지나다니는 공간은 색다른 매력이라기보다, 익숙하고 지루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놀러 나가는 대신, 내가 사는 동네에 놀거리를 만들어 즐기고자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이 마련한 동네 아지트의 이름이 바로, 〈끼룩끼룩 갈매기 여관〉(이하 끼룩여관)이다.

"저희가 이 방 옆에 있는 카페에서 작업을 자주 했는데, 귀가시간이 늦어져 택시 타는 일이 잦았어요. 택시비를 이렇게 많이 쓰느니, 차라리 방을 하나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카페 주인 언니가 이 방이 굉장히 오래 비어있었고, 월세도 싸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장 공간을 함께 꾸밀 친구들을 모았고,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는지를 고민했죠. '우리 뿐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과 인천에서 재밌게 놀고 싶다' 는 생각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할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끼룩 여관〉의 공동 운영자 중 한 사람인 서하얀 씨의 말이다. 〈끼룩 여관〉은 다양한 청년들의 공동 출자와 재능기부를 통해 꾸려진 공간이다.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친구는 여관 소개 글을 쓰고,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은 공간 인테리어를 맡았다. 몇 명은 공사를 하고, 몇 명은 청소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8월, 〈끼룩 여관〉을 오픈했다.

〈끼룩 여관〉은 늘 즐겁다. 이 공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우연히' 발생하는 놀이들이다. 손뜨개를 좋아하는 동네 친구가 손뜨개 워크숍을 열면, 그 워크숍에 놀러 왔던 친구가 핸드크림 만들기 워크숍을 연다. 누군가가 남겨놓은 드로잉 작품을 엽서로 만들면, 〈끼룩 여관〉만의 기념품이 되고, 방명록에 남기는 한 줄 글귀는 다음 방문자를 즐겁게 만드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끼룩 여관〉을 운영하며 청년들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동네가 하룻밤 묵고 가는 것만으로 특별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밥 먹고, 산책 하고, 친구를 사귀는 〈끼룩 여관〉 방문객들과의 나날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오늘도 〈끼룩 여관〉은 새로운 만남과 우연한 놀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전히 세계무대를 향한 새로운 곡을 연구한다

합창에 대한 매력은 수도 없지만 사람의 소리란 점을 가장 큰 매력

세계가 인정한 그녀의 곡

인천시립합창단 전임 작곡가 **우효원**

음악가에게 기립박수는 최고의 찬사다. 아름다운 선율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다. 세계무대에서라면 의미가 더욱 크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새롭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합창단의 색깔과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 합창단이 필요로 하는 레퍼토리를 창작해 내는 전임 작곡가 우효원 씨가 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2009년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초청연주회 공연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휘자만 오천 명 이상이 모인 세계무대였다. 당시 우 씨가 작곡한 '메나리'와 '8소성'은 합창에 대한 고정 이미지를 깨뜨려 관객에게 신선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메나리는 아리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공간음악 이예요. 8소성은 세계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웃음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고요. 지휘자인 윤학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합창단이 정한 모토가 늘 새로우면서 현대적이고 세계적이며 한국적인 음악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이 두 곡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곡이죠."

작곡을 전공한 그가 윤 지휘자와 함께 작업을 시작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무렵이다.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계기로 윤 지휘자가 그에게 함께 작업할 것을 권했다. 이후 20년째 인연을 맺어오며 인천시립합창단에서는 15년째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의 음악코드도 잘 맞는 편이다.

"선생님께서 워낙 작곡을 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지금도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면 바로 전화를 하세요. 꼭 들어보라고요."

그는 작곡을 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합창단에 맞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2005년에 발표한 '메나리'의 경우 오랜 시간을 두고 수정을 거듭했다. 덕분에 퀄리티가 높아져 관객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세'는 한곡 한곡이 더해져 뮤지컬 오라토리오가 된 케이스다. 모두 전임 작곡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작사도 거의 직접 한다. '크레오'는 한국적인 음악이지만 가사가 라틴어이다보니 가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작곡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던 작품이다. 주제를 천지창조로 정한이후 라틴어를 일일이 분석해 표를 만들어 가사화하기까지 작업과정에 꽤 공을 들여야 했다.

지난해 있었던 '인천 정명 600년 기념음악회'에서는 1시간 30분가량 되는 공연을 선보였다. "합창으로 인천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공연이었어요. 공연시간이 길었던 만큼 인천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텍스트를 만들어 가사화하기까지 준비내용이 무척 많았죠. 하지만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점이 흥미로웠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합창에 대한 매력은 수도 없지만 그는 사람의 소리란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사람의 소리는 악기와 달라, 다양한 음색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거기다 인천시립합창단의 경우 오랜 시간 한 지휘자와 합창단이 방향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 왔기에 노련미도 있다고 했다.

"우리 합창단의 장점이 굉장히 풍성한 소리와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원들이 곡에 맞는 캐릭터를 스스로 만들고 안무를 짜기도 하죠."

그는 여전히 세계무대를 향한 새로운 곡을 연구한다. 나아가 한국 합창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하기를 바란다.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

인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중 한 사람인 장우식(41)씨. 그는 상임 팀파니스트이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운 음색을 피워 내기 시작하면 그가 연주하는 팀파니의 우렁찬 울림이 더해져 연주는 더욱 화려해 진다. 리듬과 사운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팀파니이다.

장 씨는 타악기 연주자인 누나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팀파노에 눈을 돌렸다. 음악적인 재능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것이 사실이지만 가지고 있는 70프로의 재능은 독일 유학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는 말한다. 음대 졸업이후 27세에 유학을 떠난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에서 석사와 최고 연주자 과정을 모두 마치고 독일 응에 도이치 필하모니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유학 당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독일 음악인들의 테크닉과 영감이었어요. 제가 더 잘한다고 느끼면서도 왠지 모르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알고 보니 그 차이점이 기본기더라고요. 독일인들은 메트로놈을 놓고 연습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리듬을 세밀하게 따지며 익히는 거였죠. 덕분에 지금은 저도 1초에 16~20번 정도를 칠 수 있게 됐어요."

귀국 후 그는 2007년부터 인천시립교향악단에서 수많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이 수교 13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어 6월 정기연주회와 10월에 있을 원주에서의 연주회 준비로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연주회를 연 50~60회 정도는 치러내야 하다 보니 스스로 세워놓은 철칙까지 생겼다.

공연 때마다 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집에서 미리 음악을 듣거나 연습을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외에도 연주전에는 미세한 손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어떤 약도 먹지 않는다. 집중을 위해 리허설 전엔 꼭 낮잠을 자두고, 연주전엔 언제나 악기를 살피거나 닦아준다. 그가 선보이는 세밀한 연주가 당연한 이유다.

그는 악기를 잘하는 음악가이기 전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건전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여 지기를 원한다. 또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 공연을 마친 이후에도 단원들과 공연에 대한 뒷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눠 발전을 도모한다.

"사실 단원들끼리 서로의 연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조금만 낮추고 받아들이면 악단 전체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저 혼자만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 보다 우리 교향악단이 칭찬을 받으면 더욱 기쁘죠."

그는 악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던 만큼 타악기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특히 팀파니의 경우 여자 연주자는 거의 없는 편인데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되는 한 제대로, 디테일한 연주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심장을 울린다
팀파니스트 **장우식**

칼 닐센의 교향곡 제4번 '불멸(Inextinguishable)'은 생의 의지를 표현한 곡이라고 한다. 이 곡의 마지막 악장에서는 생명의 의지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는 악기가 등장한다. 바로 팀파니이다. 팀파니는 소리가 깊고 웅장해 뛰어난 팀파니스트가 없으면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악기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교향악단이 칭찬을 받으면 더욱 기쁘죠!

글 김인숙 사진 유창호

NEWS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업무 협약 체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 4월 3일(목) 예술회관 귀빈실에서 한전 인천본부 임직원과 가족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예술회관은 한전 인천본부 직원들에게 4개 시립예술단 및 회관 기획공연의 맞춤형 정보전달과 더불어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험 기획을 마련해 공연관람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한전 인천본부는 내부 홈페이지에 문화 공지란을 설치하여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내외 행사 시 공연관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직원의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시립합창단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 및 축제 한국대표로 참여

인천시립합창단이 8월 6일부터 13일까지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하는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 및 축제에 한국대표로 참여한다.

세계합창총연맹(IFCM)의 후원 하에 3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세계합창심포지엄은 9개국 25개 합창단이 참여해 70여회 공연과 워크숍, 악보 박람회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한다.

한국대표로 참여한 시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을 폭넓은 관중들에게 특히 나이와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불문하고 합창공연 같은 문화공연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합창총연맹(IFCM)과 세계합창심포지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합창총연합회, 국립극장 진흥재단이 주관한다.

개관 20주년 기념 지역 원로작가 초대전 성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예술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지역 원로작가 초대전〉을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지역 원로작가 초대전〉전은 1994년에 개관해 지금의 예술회관이 있기까지 20여 년 동안 탄탄한 지역 예술발전을 위하여 함께 애쓴 원로작가들을 초청하여 인천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마련된 전시다. 인천 미술현장에서 작업했거나, 인천을 연고로 작업해오고 있는 65세 이상의 작가들 45명의 대표 작품 90점을 한자리에 전시하였다.

작가대표로 나선 이성촌 작가는 "기획전을 마련한 예술회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인천미술인들의 터전이 될 시립미술관의 건립과 원로작가들의 안녕과 활발한 작품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옥선씨에게 공로패 전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난 5월 11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인천시립극단 단원 조옥선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옥선씨는 지난 1992년 인천시립극단에 입단하여 다음해에 사직, 2001년에 재입단하여 유령, 산불, 아씨, 벚꽃동산, 멕베스, 불멸의 처 등 다수에 출연하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쳤다. 이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의 연극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순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지역민에게 깊은 감동을 준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을 강원연극제는 22일 오후 7시 춘천 축제극장 몸짓에서 속초 극단 파·람·불의 '가족오락관'을 마지막 공연작으로 선보이고 오후 9시 같은 장소에서 시상식을 연다. 대상작에는 오는 6월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 연극제'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직원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

공연장 무대 뒤편엔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장비들이 무대를 꽉 채울까? 지난 5월 20일(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관장 박동춘)은 회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하였다.

중요 무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능 설명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무대안전 및 공연근무자 객석관리의 중점사항 등 공연장의 각 시설물과 공연 관계자들의 역할 등을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회관 내 극장의 무대 위를 실제로 올라가보고, 조명실, 음향실, 악기보관실 등 감춰져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졌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공연장 안전과 객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공연장의 각 공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박동춘 관장은 "개관이래 처음 실시한 투어지만 앞으로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연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할 것" 이라고 밀했다.

취재·정리 **오수지**

6월 Performance June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3

6 5

6 10

6 11

6 12

6 13

6 18

6 21

6 3 제23회 정기연주회
2014. 6. 3 / 오후 7시30분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학생 1만원 / 대공연장 / 010-7338-1962 / 베를리오페라단

6 5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2014. 6. 5 ~ 6 / 5일 오후 7시30분, 6일 오후 3시, 7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6 8 인천남구여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2014. 6. 8 / 오후 7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80-4276 / 인천남구여성합창단

6 10 가족뮤지컬 〈벌거숭이 임금님〉
2014. 6. 10 /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010-2898-0014 / 사랑극단 꼬마세상

6 11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2014. 6. 11 / 오후 8시 / 전석 5천원 / 대공연장 / 02)6403-7891 /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

6 12 인천카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2014. 6. 12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765-6962 / 인천카톨릭합창단

6 13 2014 춤추는 도시-인천 "공감" 특별공연II-안무자 육성프로젝트 〈단원우수작품전〉
2014. 6. 13 / 오후 8시 / 무료 / 소공연장 / 032)420-2788 / 인천시립무용단

6 14 제3회 인천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2014. 6. 14 / 오후 5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433-7778 / 인천미추홀클라리넷앙상블

6 15 신명박규리 전통춤판
2014. 6. 15 / 오후 5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544-3213 / 박규리무용단

6 18 커피콘서트VI 바흐솔리스텐 서울이 들려주는 고(古)음악이야기
2014. 6. 18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6 19 플루트앙상블콘서트
2014. 6. 19 /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888-2898 / 인천플루트콰이어

6 21 EBS 로로롤담험대 크롱을 구해줘!-인천
2014. 6. 21 ~ 22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R석 5만원, S석 4만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창라이프

6 21 플라잉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2014. 6. 21 ~ 22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02-747-4608 / 문화나들이

6 25 제64회 6.25전쟁기념식
2014. 6. 25 / 오전 9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440-2972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6 25 나편해박사와 지구수비대
2014. 6. 25 ~ 26 /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070-7825-2049 / 교육극단보물상자

6 27 제1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2014. 6. 27 /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032)873-7772 / 인천음악협회

6 28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환타지아〉
2014. 6. 28 ~ 29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70-7532-4325 / 문화공작소세움

7 5

7 6

7 10

7 12

7 16

7 18

7 18

7 26

7월 Performance July

7 3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2014. 7. 3 / 오후 2시30분 / 무료 / 소공연장 / 032)867-3388 / 인천월드휴먼브리지

7 5 베스트셀러뮤지컬 〈책 먹는 여우〉
2014. 7. 5 ~ 6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5천원 / 소공연장 / 010-2284-4842 / 가라뮤지컬

7 6 김경호 20주년 기념 콘서트
2014. 7. 6 / 오후 3시, 6시30분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 대공연장 / 032)322-2121 / (주)하늘이엔티

7 8 제25회 이건음악회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 초청
2014. 7. 8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760-0780 / (주)이건청호

7 9 6대광역시 및 제주자치도 〈무용교류전〉
2014. 7. 9 / 오후 6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865-5474 / (사)한국무용협회인천광역시지회

7 10 장애인 AG 성공개최 라디오 공개방송 〈2시 탈출 컬투쇼〉
2014. 7. 10 / 오후 5시 / 미정 / 대공연장 / 032)458-5357 / 인천장애인조직위원회

7 11 제23회 인천무용제
2014. 7. 11 / 오후 7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865-5474 / (사)한국무용협회인천광역시지회

7 12 싱어롱콘서트형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2014. 7. 12 ~ 13 / 1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1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 대공연장 / 1544-3901 / 엠플러스

7 16 커피콘서트Ⅷ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대건 〈여섯줄의 감성언어로 읊는 詩〉
2014. 7. 16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7 1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8회 정기연주회
2014. 7. 18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7 18 밴드데이Ⅷ 솔탄 오브 더 디스코
2014. 7. 18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7 19 테마콘서트 〈Opera with clarinets〉
2014. 7. 19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424-7117 / 인천클라리넷앙상블

7 20 제14회 인천국악대제전
2014. 7. 20 / 오전 10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75-4644 / (사)한국국악협회인천지회

7 24 제16회 이웃사랑 열린음악회
2014. 7. 24 / 오후 7시 / 전석 2만원 / 대공연장 / 032)468-0704 / (사)남동이행복한재단

7 26 스테이지149 해외초청작2 〈빙하탈출대소동〉
2014. 7. 26 ~ 27 / 오전 11시,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월 Performance August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12 2014 썸머페스티벌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14. 8. 12 /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8 13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바로크와 고전주의음악〉
2014. 8. 13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3 커피콘서트Ⅷ 자전거 탄 풍경 〈우리들의 여름〉
2014. 8. 13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4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성악연주회〉
2014. 8. 14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5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조재혁 피아노리사이틀〉
2014. 8. 15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6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낭만주의 음악 with 프라임필〉
2014. 8. 16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6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실내악 연주회〉
2014. 8. 16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8 17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민족주의와 근현대음악〉
2014. 8. 17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7 2014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사랑의 묘약〉
2014. 8. 17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8 18 Violinist 박종배 초청 Vivaldi in Buenos aires
2014. 8. 19 /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032)888-0817 / 인음챔버오케스트라

8 21 인천시립합창단 제141회 정기연주회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2014. 8. 21 / 미정 / 미정 / 대공연장 / 032)420-2784 / 인천시립합창단

8 30 PMC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
2014. 8. 30 ~ 31 / 3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3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R석 5만원, S석 4만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이프

8 12

8 13

8 13

8 14

8 15

8 16

8 16

8 17

6월 Exhibition June

빈자들 그리고 Mangrove 0.000

제11회 바웸아카데미

인천현대미술의 흐름전

인에전

이희성 개인전

제16회 김민환 사진전

2014 흙과 사람들전

제9회 한묵회전

한영애 개인전

제24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제4회 청소년환경지킴이전

창파회원전

2014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인천사생회 정기전

6월 June

6.1 빈자들 그리고 Mangrove 0.000
2014. 6. 1 ~ 5 / 대전시실 /
010-6239-3275 / 이현열

6.1 제9회 한묵회전
2014. 6. 1 ~ 5 / 중앙전시실 /
010-5512-4334 / 한묵회

6.1 제11회 바웸아카데미
2014. 6. 1 ~ 5 / 소전시실 /
010-7274-3601 / 바웸아카데미

6.1 제24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2014. 6. 1 ~ 5 / 미추홀전시실 /
010-5177-6910 / 인천서예술연구회

6.6 인천현대미술의 흐름전
2014. 6. 6 ~ 12 / 대, 중앙, 소전시실 /
010-3783-5922 /
환경미술협회 인천지회

6.6 한영애 개인전
2014. 6. 6 ~ 12 / 미추홀전시실 /
010-7565-6885 / 한영애

6.13 인천사생회 정기전
2014. 6. 13 ~ 19 / 대전시실 /
010-8616-2437 / 인천사생회

6.13 제16회 김민환 사진전
2014. 6. 13 ~ 19 / 중앙전시실 /
010-2298-0035 / 김민환

6.13 인에전
2014. 6. 13 ~ 19 / 미추홀전시실 /
010-4743-9072 / 인천예술고등학교

6.20 2014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2014. 6. 20 ~ 26 / 대전시실 /
010-2413-9210 / 인천가톨릭미술가회

6.20 2014 흙과 사람들전
2014. 6. 20 ~ 26 / 소전시실 /
010-6226-9032 / 흙과 사람들

6.20 이희성 개인전
2014. 6. 20 ~ 26 / 미추홀전시실 /
011-448-8354 / 이희성

6.22 중국 광저우 링난 수묵화 교류전
2014. 6. 22 ~ 26 / 중앙전시실 /
032)440-3223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

6.22 제4회 청소년환경지킴이전
2014. 6. 27 ~ 7. 3 / 대, 중앙, 소전시실 /
010-8950-1268 /
청소년환경지킴이위원회

6.27 창파회원전
2014. 6. 27 ~ 7. 3 / 미추홀전시실 /
010-6322-4064 / 창파회

7월 Performance July

장애인 국가대표 조세현 작가전

디지털 서양미술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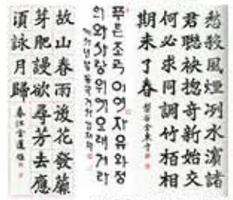
8월 Performance August

※일정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6회 그림벗전

제5회 아라회 작품전 (사계, 색의 귀환전)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21회 한, 중 서예국제교류전

그룹 「1279」 展

인천개항장의 어제와 오늘 展

7월 July

7.4 장애인 국가대표 조세현 작가전
2014. 7. 4 ~ 17 / 대전시실 /
032)458-5353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7.11 제34회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 및 제17회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2014. 7. 11 ~ 14 / 미추홀전시실 /
032)440-4255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7.26 디지털 서양미술사전
2014. 7. 26 ~ 8. 20 / 대, 중앙전시실 /
032)420-2051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8월 August

8.8 그룹 「1279」 展
2014. 8. 8 ~ 14 / 소전시실 /
010-2279-0463 / 원은경

8.8 인천개항장의 어제와 오늘 展
2014. 8. 8 ~ 21 / 미추홀전시실 /
032)873-5174 / 인천예총

8.22 제10회 인천 서예 전람회 및 초대작가전
2014. 8. 22 ~ 28 / 대, 중앙, 소전시실 /
010-2627-1606 /
사한국서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8.22 제8회 빛과 향기 회원전
2014. 8. 22 ~ 28 / 미추홀전시실 /
010-8985-9538 / 빛과 향기

8.29 제21회 한, 중 서예국제교류전
2014. 8. 29 ~ 9. 4 / 대전시실 /
010-2285-8876 /
사한국서예협회 인천광역시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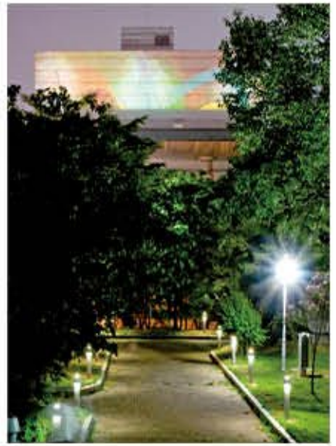
8.29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2014. 8. 29 ~ 9. 4 / 중앙전시실 /
010-3158-4801 / 인천가사회

8.29 제5회 아라회 작품전 (사계, 색의 귀환전)
2014. 8. 29 ~ 9. 4 / 소전시실 /
010-6344-5064 / 아리회

8.29 제16회 그림벗전
2014. 8. 29 ~ 9. 4 / 미추홀전시실 /
010-4214-8622 / 그림벗전

Culture Leader
회원가입안내

Pause… '쉼'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Culture Leader 회원이 되세요.
삶이 풍요로워 집니다.



Culture Friends 제휴점 이용시 할인 제공
계간 문예정보지 「아트인천」 무료 우송
월간 Program Guide(공연안내지) 무료 우송
회관 기획 초대공연의 경우 우선적으로 초대권 발송
기획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 ~ 40% 범위 내 할인 (일반회원 2매한 / 가족회원 4매한)

회원가입방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incheon.go.kr)에 접속 →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유료회원가입하기' 클릭 가입신청서 기재 후 '확인'
- 회원가입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선택하신 유료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2-745489(종합문화예술회관)
- 입금확인 연락처 : 032) 420-2739 정기회원담당자

회원공연예매는 이렇게

- 매월 공연안내지 발송 시 '회원 안내문'에 회원 할인공연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회원 할인대상 공연에 대한 예매는 '회원 안내문'에 기재된 예매처로 예매하시면 편리합니다.
- 회원 할인 전화예매는 공연 3일전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회원증능 제시하시면 예매하신 좌석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획사로 연락바라며, 회원 예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아래의 회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담당자 : 032) 420-2739

CENTRAL PLAZA HOTEL Incheon

센트럴프라자호텔
릴리레스토랑
중식(샐러드뷔페) 25%
호텔객실 50% 할인

센트럴프라자호텔 2층에 위치한 릴리 레스토랑은 아침에는 투숙객을 위한 조식뷔페장소로 활용되며, 런치는 샐러드뷔페로 연중 상설로 운영됩니다. 샐러드뷔페 메뉴에는 시즌별로 계절샐러드와 파스타류, 베이커리, 핫 디쉬 등 약 45개 종류의 메뉴가 풍성하게 제공되며, 별도로 안심스테이크, 등심스테이크를 주문하실 경우 샐러드 뷔페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15 센트럴프라자호텔 2층
Tel. 032)724-1000

로스터리 커피하우스
Petit Art Roastery Coffee House
쁘띠아르
모든메뉴 10% 할인

예술회관 바로 앞엔 로스터리카페 '쁘띠아르 (petit art 작은 예술공간)' 가 있다. 카페에선 후지로얄(3kg)의 성세한 볼 꽃으로 생두를 볶고, 핸드드립으로 원두의 풍미를 절묘하게 담아낸다. 세계 곳곳의 스페셜티 커피를 구해서, 고르고 볶고 내리는 주인의 손길은 마에스트로의 음짓처럼 신중하고 단호하다. 음악과 연극 그리고 커피... 삶이 되는 예술, 그 어디쯤에 쁘띠아르가 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93-1
Tel. 032)427-9228

Serendip Dining Cafe
다이닝카페 세렌디프
모든메뉴 10% 할인

다이닝카페 '세렌디프'는 송도신도시 커넬워크에 새롭게 문을 연 고품격 레스토랑이다. 감각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 인천대교의 야경과 커넬워크의 산책로는 고객님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특1급 호텔 출신의 경영진과 셰프가 모여 만든 고급메뉴와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는 연인, 친목모임은 물론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 손색이 없다.
모바일앱 www.serendip.kr

연수구 송도동17-1 커넬워크 401동(Winter) 205호
Tel. 032)261-0400

포린커피
포린커피
커피 및 음료 10% 할인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의 건너편에 위치한 포린커피 (Fall in coffee)는 주인장이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커피를 내립니다. 산지별로 특별한 향의 핸드드립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원두도 판매하고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접과일을 넣어 만드는 '진짜과일 스무디'와 국내산 팥으로 직접 쑤어 만든 '솔직한 팥빙수'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61
Tel. 032)429-1107

Culture Friends
제휴점

공연정보가 제공되고
공연의 감동이 이어지는 공간
Culture Friends 제휴점에서
Culture Leader 회원증을 제시해 주시면
소정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국철 1호선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 국제업무지구방면으로 환승하여 예술회관역 하차 6번 출구

■ 버스이용시

- 예술회관역 정류장 간선버스(파랑) : 21, 41, 77, 754
- 문화예술회관 정류장 지선버스(초록) : 523, 534
- 신세계백화점(터미널) 정류장 (인천시청방면 도보 10분)

간선도로(파랑) : 3, 4, 6, 6-1, 11, 13, 21-1, 22, 27, 35, 36, 38
지선버스(초록) : 31, 514, 514-1, 520, 534
좌석버스 : 111, 111-2, 700
광역버스 : 1300, 1400

■ 자가용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

도화IC → 도화초교사거리(주안역방면 우회전) → 주안역삼거리(문학경기장방면 우회전) → 구시민회관 사거리(석바위 방면 좌회전) → 시청역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예술회관역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 → 남동경찰서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좌회전 → 터미널 중앙공원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주차안내

- 주차요금

– 처음 30분 : 일반차량 600원 (경차 및 장애우 차량은 할인적용 됩니다.)
– 정산소에 공연티켓 또는 관람확인증 제출 시 3시간 기준 1,500원입니다.

- 주차시설 이용문의처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032)579-2701~3

※ 공연관람시 주차요금은 공연티켓을 제출하시면 1,500원 정액 지급
※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20th Anniversary

SUMMER Festival 2014

인천 청소년음악회 2014 썸머페스티벌

2014.8.12(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소공연장

8.12(Tue) 3:00PM | 대공연장
해설이 있는 인천시립교향악단 해피 클래식
지휘 이경구
연주 인천시립교향악단

8.13(Wed) 5:00PM | 대공연장
해설이 있는 바로크와 고전주의음악
지휘 박인욱 (세종대 초빙교수)
연주 코리아솔로이츠오케스트라

8.14(Thu) 3:00PM | 소공연장
해설이 있는 성악연주회
연주 올댓 앙상블

8.15(Fri) 3:00PM | 소공연장
해설이 있는 조재혁 피아노 리사이틀
피아노 조재혁 (성신여대 교수)

8.16(Sat) 3:00PM | 소공연장
해설이 있는 실내악 연주회
연주 비엔나 리호텔발 콰르텟

8.16(Sat) 5:00PM | 대공연장
해설이 있는 낭만주의 음악
with 프라임필
지휘 여자경
연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8.17(Sun) 3:00PM | 대공연장
해설이 있는 민족주의와 근현대음악
지휘 이종진(前 충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연주 팬아시아 필하모니아

8.17(Sun) 5:00PM | 소공연장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사랑의 묘약〉
연주 미추홀오페라단

※ 프로그램은 사랑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관람료 : 전석 1만원(12일 공연 별도) / 관람연령 : 8세 이상

예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art.incheon.go.kr 032)420-2000(회원전용) / 엔티켓 www.enticket.com 1588-2341 /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名作,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STAGE ON SCREEN

2014. 8. 20(수) ~ 8. 30(토)

수 · 목 19:30 / 금 · 토 20: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무료)

주최 |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문의 | 공연기획실 032.420.2731